

Question!

청소년을 위한 가톨릭 성교육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Q • Contract vs Covenant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사귄 지 3년 된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마 이 친구와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평생 이 사람과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이게 큰 모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잘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싶은 걱정도 생기구요. 그래서 동거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얼마 전에는 남자친구와 이 주제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시험 삼아 함께 살면서 서로 맞는지 아닌지 알아보자는 거지요. 서로의 성격이나 습관 그리고 가치관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니 결혼 생활에도 더 좋지 않을까요? 혼인 전 동거에 대해서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

저는 미국의 클리블랜드 교구 내의 미국인 성당에서 5년간 사목을 했는데요, 이때 혼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미국 성당에서 혼인을 하려는 예비부부는 적어도 6개월 전 본당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제와 6개월 동안 함께 혼인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준비를 위해 예비부부를 처음 만나면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적게 하는데요, 그때마다 한 번씩 놀라곤 했습니다. 현재 사는 곳의 주소를 똑같이 적는 예비부부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동거를 하고 있다는 의미였지요. 앞의 질문처럼 요즘 사람들은 혼인 전 동거에 대해서 참 개방적(?)인 것 같습니다. 동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함께 살아 보면 서로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혼인 전 동거가 괜찮을까요?



미국에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혼인 전 동거한 커플들과 하지 않은 커플들의 이혼율을 비교한 통계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인 전 시험 삼아 살아 보면 서로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고, 덕분에 이혼할 확률이 낮아질 거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혼인 전 동거를 경험한 부부의 이혼율이 경험하지 않은 부부의 이혼율보다 80% 이상 높았던 것입니다. 더불어 불륜의 가능성도 동거했던 커플이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세 배 이상 높게 나왔다고 하네요.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동거를 하지 않은 부부가 훨씬 더 높았고요. 도대체 왜 이런 결론이 나온 걸까요?

우리는 이 통계 결과를 통해 남녀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질문한 친구는 '시험 삼아' 함께 살면서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는 것이 동거하는 이유라고 했지요. 문제는 이 '시험 삼아'라는 말에 있습니다. 동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대를 테스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와 맞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을 위해 나를 희생한다는 마음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희생이 있어야 사랑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 같은 본당에서 교리교사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실제 커플의 결혼사진.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해 준다. 혼인 주례를 담당했던 필자가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보내온 사진이다.






여기서 우리는 ‘합의(Contract)’와 ‘서약(Covenant)’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거하는 사람들은 서로 ‘합의’를 하는 마음입니다. 서로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물 다루듯이 대합니다. 그저 나에게 만족을 주면 괜찮은 것입니다. 합의에는 영원성이 없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일정한 기간 안에만 약속이 유효한 것이죠. 하지만 결혼은 어떤가요? 결혼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영원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혼인 서약을 합니다. 사랑은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 때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서약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합니다. 상대방을 나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약은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서약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합의는 세속적인 일로 서로 상거래를 하는 것이지만 서약은 성스러운 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 전 동거는 우리가 맺어야 할 혼인 서약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는 연인 사이에 인내와 절제,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혼전 동거는 이러한 가치들보다 나만의 만족과 쾌락을 더 앞세우게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계약이 바로 서약을 의미하는 ‘Covenant’입니다. 합의를 의미하는 ‘Contract’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혼인은 이와 같은 ‘Covenant’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계약에 충실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순수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Covenant(서약)’가 아니라 ‘Contract(합의)’를 한 것처럼 살아간 것입니다. 때문에 하느님께서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평생을 일치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집이어야 할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Contract’와 ‘Covenant’의 차이에 대해 묵상하며, 나는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대구대교구 소속 사제. 신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2011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St. Mary Seminary and Graduate School of Theology를 졸업하고(석사)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 이후 수학을 계속하여 사목 신학을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구대교구 4대리구에서 청년·청소년 사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틴스타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